

다니엘서 - 번호 23

경멸하는 남자들

Jeff Pippenger

2023-12-18

화이트 자매는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빛났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 있게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 되었으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8:1-3.

2001년 9월 11일까지, 땅의 '왕들'은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음행을 저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에 처음으로 바티칸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 그가 교황청과 정치적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미합중국 의회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었지만, 수십 년 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에 바티칸 주재 대사를 임명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2001년까지 모든 나라가 두로의 음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바티칸과 음행을 저질렀다.

2001년 9월 11일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교황권이 제시하는 갖가지 거짓을 모두 상징하지만, 이 구절들에서 특별히 지목된 포도주의 한 종류는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다. 교황권의 분노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녀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그 더러운 일을 하게 함으로써 박해를 수행한다. 그녀의 진노의 포도주는 그녀가 이단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를 동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녀가 특별히 빛어낸 오류의 포도주다.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암흑시대에서 불려내심을 받고 그때 로마의 딸들이 된 개신교 교회들로부터 분리된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새로 나타난 땅의 짐승 위에 있는 참된 개신교의 뿌리 되었다. 베드로는 새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으로서 지닌 특성을 밝힌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려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9, 10.

2001년 9월 11일까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이미 자주 미국 정부의 정치 구조를 활용해 자신들이 이단으로 간주한 이들을 공격해 왔다. 2001년 훨씬 이전부터 재림교회는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특별한 포도주를 마셔 왔다.

에브라임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왕국의 반역을 상징하며, 이사야는 28장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고 부르며 시작한다.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의 관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아름다움은 시들어 가는 꽃 같으니, 술에 제압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도다. 보라, 주께서 강하고 능한 자를 두셨나니, 그는 우박의 폭풍과 멸하는 광풍 같고, 넘쳐 흐르는 힘센 물의 홍수 같아서, 손으로 땅에 내던지리라. 그 교만의 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아래 짓밟히리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로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 같을 것이며, 여름 이전의 이른 열매와 같으리라. 보는 자가 그것을 보자마자, 아직 손에 들고 있는 동안에 곧 먹어 치우는 것 같으니라. 그 날에 만군의 주께서 그의 남은 백성에게는 영광의 관이 되시며 아름다움의 관이 되시고, 재판하는 자에게는 판단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성문까지 몰아가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였고, 독주로 말미암아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고, 포도주에 삼켜졌으며, 독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도다. 그들은 환상에서 잘못 보고, 판결에서 비틀거리느니라.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움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사야 28:1-8.

셋째 화는 2001년 9월 11일에 임했으며, 그것은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관" 위에 임했다. 그것은 연료로 가득 찬 비행기로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 본부를 공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셋째 화의 이슬람의 도래가 셋째 천사의 늦은비 기별의 시작이었음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곧 그들이 자신들이 선포하도록 세워졌다고 공언해 온 바로 그 기별과 사업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지도력을 상징하는 "관"일 뿐만 아니라 "교만의 관"으로도 규정되며, 이로써 하박국 2장의 논쟁 속에서 과거에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두 부류의 예배자 중 하나로 식별된다. 2001년 9월 11일, 하박국의 파수꾼들이 성문에서의 전투에 자기 자리에 섰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성문에서의 전투는 동풍의 날(이슬람의 날)에 시작된, 이사야서 이전 장의 '논쟁'을 상징한다.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예배자들의 두 부류는 두 개의 면류관으로 표현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이미 그 시점에 자신들이 이단으로 여긴 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했던 자들인데, 그들은 만군의 주의 면류관과 대조된다.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주로 묘사될 때,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서의 사역을 상징한다. 성문에서의 전투는 참과 거짓 신학을 둘러싼 논쟁으로 상징되는 전쟁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로 묘사되는 것이 단지 총회 지도부만은 아니다. 제사장들(목회 사역)과 선지자들(신학자와 교육자) 또한 독주로 말미암아 길에서 벗어났다. 이사야가 그의 예언의 서두에서 말하듯, 이는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 하늘이여, 들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녀들을 기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악 가득한 나라여, 죄악의 짐을 진 백성, 행악자의 씨, 부패한 자식들아!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하게 하며, 뒤로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더욱더 반역할 뿐이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쇠약하다. 이사야 1:1-5.

죄악된 나라는 병들었고,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할 어떤 구제책도 내놓을 수 있는 때를 지나버렸다. 이사야는 술 취한 자들이 길에서 벗어났다고 밝히며, 예레미야는 그 길을 "옛 길들"이라고 규정한다. 2001년 9월 11일,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술 취한 자들이 벗어난 그 "길", 곧 옛 길들로 행할 때 늦은 비의 침을 찾게 된다고 밝힌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침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라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의 생각이 맺은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율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버렸음이라. 예레미야 6:16-19.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은 2001년 9월 11일에 길에서 벗어났고, 그들이 "옛 길"을 거절하는 과정을 시작했던 1863년에 "뒤로 물러섰다". "늦은 비"의 침과 새롭게 함은 "옛 길"에서 발견되며, 그 "화"가 그들에게 선포되던 바로 그때 그 비가 시작되었다. 이슬람의 세 번째 "화"는 에브라임의 교만의 관에게는 알아볼 수 없었으니, 그들이 예언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식별하게 해 주는 기초적 진리들을 점진적으로 거절해 왔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그때 주께서 파수꾼들을 일으키셨다고 밝히며, 그들은 하박국의 파수꾼들이었고, 성문에서의 전투 가운데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에게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선포했다. 2001년 9월 11일에 도래한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었다.

이사야는 "그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길에서 벗어나며, 환상에서 그릇 보고, 판단에서 비틀거린다.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다"고 지적한다. 1863년에 도입되어 "일곱 때"를 제거하고 해설 자료를 덧붙여야 했던 그 위조된 도표는 하박국의 두 거룩한 판들을 모방한 위조품을 대표하지만, 술 취한 자들이 사용한 그 위조된 "판들"은 토약물로 가득하며, 그들은 환상에서 그릇 본다.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파수꾼들은 방법론에 관한 논쟁 속에서 "환상"을 "판들" 위에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술 취한 자들의 위조된 판들은 그릇된 환상을 제시한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했지만, '논쟁', 곧 '성문에서의 전투'의 맥락은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확립된 방법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예언적 율법이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8절에서 배경을 설정한 뒤, 그는 그 방법론이 바로 늦은 비임을 밝히고, 특히 그 취한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로 지목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느냐? 젖을 땀 자들, 젖가슴에서 떼어진 자들이냐? 이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라.

대저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혀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쉬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에게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계약을 맺었은즉, 넘쳐오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었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으니, 곧 시험된 돌이요, 귀한 모퉁잇돌이요, 견고한 기초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공법을 측량줄로 삼고, 의를 다림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치리라. 너희의 사망과의 언약이 폐하여질 것이며, 스올과의 계약이 서지 못하리니, 넘쳐오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는 그것에 짓밟히리라. 이사야 28:9-18.

여기서 "논쟁"은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겠느냐?"라는 물음의 틀로 정의된다. 여기서 "누구에게(whom)"는 잠재적 학생들을 가리키지만, 논점은 곧 지식인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릴 때 지식이 증가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음을 나타낸다. "교리"라는 말은 특정한 사상 체계나 지식 체계를 이루는 신념, 원리, 가르침, 또는 규칙의 집합을 의미한다. 성경적 "교리들"을 이해하려면 그 지식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성경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 방법론은 "명령에 명령, 명령에 명령; 규례에 규례, 규례에 규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으로 규정된다. 2001년 9월 11일을 셋째 '화'의 도래로 식별한 그 방법론은 첫째 '화'의 예언적 선을 둘째 '화'의 예언적 선과 결합하는 데에 근거하며, 그래서 셋째 '화'의 예언적 선에 대한 두 증인을 제시한다. 그 방법론은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는 '논쟁'의 시험인데, 이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 명령에 명령; 규례에 규례, 규례에 규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비웃는 자들의 다섯 가지 실족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나타낸다. 그 방법론은 분명히 시험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예레미야의 옛 길들을 거부하고, 파수꾼들의 나팔 경고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며, 위조된 도표들을 만들어 내고, 죽음과 언약을 맺었을 바로 그때, 성문에서의 전투 중에 만군의 여호와와 왕관을 쓴 자들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안식과 새롭게 함을 의미하는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4만 4천 명의 인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방법론과 엘리야의 사자가 대표하는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많은 이들"은 그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지만, 택함을 받을 소수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라고 나를 교훈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백성이 '음모다' 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음모다'라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히 구별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으며 그를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는 너희에게 성소가 되시겠으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림이 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울무와 덧이 되시리라.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비틀거리며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하라. 야곱의 집에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8-17.

분명히 이사야는 자신의 말과 일치하므로, 이사야 28장에서 넘어지는 많은 이들은 이사야 8장에서 넘어지는 이들과 동일하다. 이사야 8장에서는 그들의 넘어짐이 인치는 때에 일어남을 보는데, 그 인치는 때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8장의 경고는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늦은비 메시지가 있는 옛 길, 곧 예레미야가 말한 길로 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8장에서 넘어지는 자들은 바벨론의 특별한 포도주를 상징하는 동맹, 즉 이단으로 간주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교회와 국가가 연합한 동맹을 신뢰하는 자들이다. 8장에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걸림돌인데, 이는 1863년에 기초적 진리를 처음으로 거절한 것, 곧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상징하며, 그 '일곱 때'는 1863년에 '건축자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그 거절 가운데 그들은 배도한 개신교의 방법론으로 되돌아가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준 메시지를 거절하였다.

제28장에서 돌을 거절한 결과로 '넘치는 채찍'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되어 온 세상 전체로 범람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적 상징이다. 일요일 법령 때 재림교회가 '사망'과 '음부'와 맺은 언약은 쓸려 나갈 것이다. 사망과 언약을 맺은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을 쓸어버리실 때, 그들의 '거짓의 피난처'가 제거될 것이다. '거짓의 피난처'는 사도 바울에 의해 강한 미혹을 가져오는 거짓으로 표현되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그 강한 미혹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증오에 대한 응답이다.

그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나타나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이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는 항상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음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친 전통들을 굳게 잡으라. 데살로니가후서 2:9-15.

"강한 미혹"을 만들어낸 "거짓의 피난처"는 마침내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인한 징벌을 가져온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부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부류를 구분하며, 이로써 하박국 2장의 논쟁 속 두 부류를 가리킨다. 이사야는 29장에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 "아리엘"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며 시작한다.

화 있을지어다, 아리엘아, 아리엘아, 다윗이 거하던 성읍이여! 해에 해를 더하고, 그들이 희생제물을 잡게 하라. 이사야 29:1.

"아리엘"(예루살렘 도성)의 상징적 이중 언급에 대해 다시 한 번 "화"가 선언된다. "해마다"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1863년에 시작된 점진적 반역을 나타낸다. 이후의 구절들은 일요일 법령 위기 기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위에 임할 심판을 개괄한다. 9절에서는 "기이한 일"이 제시되는데, 이는 방법론에 관한 논쟁을 강조하는 한편, 재림주의의 반역적 상태를 "한밤중 외침" 기별의 한 요소로 지목한다. 이 "한밤중 외침" 기별은 또한 첫 절에서 "아리엘"의 이중 언급으로 표상된 둘째 천사와 연결되어 있다.

멈추어 서서 놀라워하라; 외치고 또 외치라. 그들은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취하였고,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비틀거린다. 이는 여호와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 위에 쏟아 부으시고 너희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곧 선지자들과 너희 통치자들,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과 같아졌다.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 책을 건네며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되 "나는 읽을 수 없나니 그것이 봉해졌기 때문이다" 하고, 또 그 책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 건네며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되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규례로 배운 것뿐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참으로 놀라운 일과 기이한 일을 하리라.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슬기로운 자들의 총명이 감추어지리라. 이사야 29:9-14.

제27장에 기록된 '논쟁'은 참된 방법론과 거짓 방법론의 대립을 대표한다. 그 논쟁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의 취함은 재림주의 지도부가 봉인된 책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눈멀음으로 지적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며,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그 책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것에는 '일곱 중 여덟째 존재'의 수수께끼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다니엘이 제2장에서 깨닫도록 받은 '비밀'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일곱 우레의 '숨은 역사'이다. 그것은 세 번째 '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기별이며,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의 책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변호한다고 공언하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는 지도 체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시대의 산헤드린으로 대표되었던 자들에게 주어진다. 산헤드린으로 전형화된 그 체계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봉해진 책이 주어지며, 그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고상하고 교육받았으며 학문적인 대답은, 그것이 봉해져 있으므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 지도자로 구별된 자들만 따르도록 훈련된 양 떼에게도 같은 책이 주어지고, 그들의 반응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 곧 마지막 때의 산헤드린이 그 의미를 말해 줄 때에만 자신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밀러에게 주어지고 이어서 퓨처 포 아메리카에게 주어진 방법론은 예언적 역사의 이정표이다. 그것은 생사를 가르치는 시험 문제를 식별하는 이정표이다. 옳은 방법론이 없으면 늦은 비의 기별은 "봉인된 책의 글"과 같다. 늦은 비의 기별이 없으면 그 기별이

남는 경험은 얻을 수 없다. 그 방법론은 성경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예언의 선 위에 예언의 선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은 말세의 시작과 끝의 역사 모두에서 첫 번째 기별이 권능을 받을 때 시작되었다.

밀러주의 운동의 초기 역사에서 그 논쟁은 1840년 8월 11일에 시작되었고, 필라델피아적 밀러주의 운동이 라오디게아적 밀러주의 운동으로 전환되던 시기의 그 역사의 말미에 다시 반복되었다.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적 운동의 역사에서 그 논쟁은 2001년 9월 11일에 다시 시작되었고, 그 운동의 끝에 이르러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적 운동이 14만 4천의 필라델피아적 운동으로 전환될 때 다시 반복된다. 밀러주의자들의 초기 시험과 마지막 시험에서 그 시험은 엘리야 기별자의 방법론으로 대표되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신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살펴볼 때, 우리는 구절 위에 구절을 더해 가는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혹은 오시지 않을지를 때를 못 박아 주는 참된 기별은 아무에게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오 년, 십 년, 이십 년 지연하신다고 말할 권위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음을 확신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태복음 24:44). 이것이 우리의 기별이며,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기별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타락한 세상에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올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새 생명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를 위하여 함께 자란다.

이 사업은 마지막 때에 이를 때까지 더욱 심화되고 더욱 간절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든 이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해 가장 간절히 힘써 싸울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고 있는 현재의 기별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끝까지 서 있을 유일한 반석은 만세의 반석뿐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이 오류의 시대에는 피난처이다....

예언은 조목조목 성취되어 왔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기치 아래 더욱 굳게 설수록, 다니엘서의 예언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보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을 통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받아들일수록, 영원한 보좌처럼 더욱 깊고 더욱 확고하게 옛 예언의 진리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하였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성령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들 자신도 성령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 이 기별들은 예언을 선포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취의 현장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외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신처럼 자신들에게 새로운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받아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견지해 온 입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와 함께,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된 천사들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예언을 믿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다른 이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기별, 2권, 113, 114.